

오인철 (주)태성종합건설 대표 제21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 선출을 축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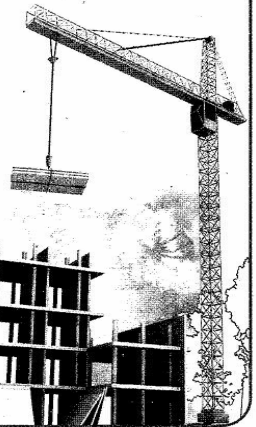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제21대 회장 오인철

종합건설업 업역 및 권익보호, 건설협회 혁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협회 운영의 근간인 회원사
수익증대 및 실질적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임기동안
도내건설업계의 위상제고를 기대합니다.

흥천군일반건설협의회 일동

- (주)태성종합건설
- 신영건설(주)
- 신영종합건설(주)
- 호향건설(주)
- 복성종합건설(주)
- 태영산업개발(주)
- 진성종합건설(주)
- (주)선일종합건설
- (주)가람건설
- (주)대운건설
- (주)남진건설
- 선양종합건설(주)
- (주)국일종합건설



일자리 창출·지역 균형발전에 2조7천억 투입

올해 도내 지역발전사업에 총 2조7,6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강원도 발전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도는 “강원도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인 2015년 강원도 시행계획이 지난 24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시행계획에 따라 도내 전체 시·군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87개 단위사업에 총 2조7,600억원(국비 1조6,954억원, 지방비 2,673억원, 민자 7,964억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5대 분야는 △지역생활권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

강원도 발전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확정

5개 분야 87개 단위사업에 국비 1조6,954억원 등 투자
교육·문화·복지 수준 향상 통한 삶의 질 격차 해소

고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 △지역문화 육성·생태복원 △사각 없는 지역복지·의료 등이다.

올해 계획의 특징은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지역개념을 정착시키고 18개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시·군 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다.

아울러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통한 삶의 질 격차 해소와 함께 수요에 기반한 지역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도는 시행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상향식 추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체평가 체계를 강화해 추진과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강원도 시행계획은 지난해 말 확정된 ‘지역발전 5개년 계획(2014-2018년)’의 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정부 및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협력해 수립하는 법정부 계획이다.

중앙부처가 수립하는 ‘부문별 시행계획’과 17개 시·도가 수립하는 시·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김보현 도균형발전과장은 “2015년 도 강원도 시행계획이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안내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주체들 간 비전 공유와 협력을 유도해 실행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현기자 sunny@

■ 지역발전 5개년 계획 2015년 주요사업

| 분야별(사업수) | 총예산(국비) (단위 : 백만원) | 주요사업 현황 |
|-------------------------------|--------------------------|--|
| 합계(87개) | 2,759,262 (1,695,476) | 에메니티산업 1번지, 세계 속의 생명·건강 허브 |
| 지역생활권 활성화(34개) | 2,391,001 (1,484,584) | -기초생활 기반 확충 -슬레이트 지붕 철거 -원주-강릉 철도 건설 -특수생활지역 개발 |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24개) | 204,967 (133,490) | -지역특화산업 육성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크루즈관광 활성화 |
|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 양성(10개) | 14,207 (-) |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지역혁신 창의인력 양성사업 -글로벌마인드 함양사업 -대학생 실습공무원 운영 |
| 지역문화 육성· 생태복원(9개) | 94,770 (42,478) | -문화시설 확충 -체육진흥시설 지원 -작은영화관 건립 -생태하천 복원사업 |
| 사각 없는 지역복지· 의료(10개) | 54,317 (34,924) |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지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복지공동체 활성화 -주민정신건강 지원 확대 |

“회원사 수익 증대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오인철 신임 회장 인터뷰

오인철 신임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사진)은 “그 어느 때보다 건설업계가 힘든 시기에 회장으로 선출돼 두려움도 크고 설렘도 크다”고 밝혔다.

오 회장은 “공공공사 물량 수주가 대부분인 지역 건설업계는 2009년 이후 공공 발주물량이 줄어들면서 경영난이 지속되고 건설환경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형국”이라며 “그동안 도회와 회원사의 노력으로 각종 현안을 해결했지만 아직도 건설업계를 위협하는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어려운 시기에 도



회장으로서의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임기 동안 건설업계의 위상이 제고되고 회원사의 실질적인 수익 증대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종합건설업 업역 및 권익 보호, 건설협회 혁신을 위한 시스템 구축, 다양한 사회공헌사업 추진 등 현안에 앞장서고, 무엇보다 협회 운영의 근간인 회원사에 실질적 혜택 부여 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회원사들의 의견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이는 소통이 이뤄지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위윤기자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정동기) 제57회 정기총회가 2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열려 오인철 춘천 태성종합건설 대표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승선기자

건설협회 도회장에 오인철씨 선출

경선에서 51 대 50 ... 1표 차이

오인철 태성종합건설 대표가 제21대 대한건설협회 도회장에 선출됐다.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2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도회장 선출을 위한 대표회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오 대표가 도회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신임 오 회장은 정동기 현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오는 6월26일부터 3년간 도회를 이끌게 된다.

이날 선거에서 오 대표는 총 대표회원 투표 수 102표 중 51표를 얻어 50표

를 얻은 한상준 우림토건 대표를 앞섰다. 무효는 1표였다.

오인철 신임 도회장은 1956년 홍천 출생으로 강원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도체육회 이사, 홍천군번영회 감사 등을 지냈다.

현재 홍천세무서세정협의회위원장, 강원지방경찰청 경찰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도육상경기연맹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오 회장은 “그간의 경험과 경력을 활용해 어려움에 처한 도내 건설시장 활성화를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제21대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

당선을 축하합니다

강원도내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수장이 되심을 축하하며
혁신과 화합으로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회원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일반건설협의회

- | | | |
|-----------|-----------|-----------|
| (주)태성종합건설 | (주)남진건설 | 대영산업개발(주) |
| 신영종합건설(주) | (주)국일종합건설 | (주)선일종합건설 |
| 북성종합건설(주) | 신영건설(주) | (주)대운건설 |
| 진성종합건설(주) | 효창건설(주) | 선양종합건설(주) |
| (주)가람건설 | | |



오인철
대한건설협회강원도회장



도, 지역발전사업 2조7600억 투입

지역발전위 심의 의결
분야별 87개 사업 추진
SOC·크루즈 활성화도

강원도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올해 지역발전사업에 2조76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도는 최근 열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강원도 시행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은 '어메니티산업(Amenity Industry) 1번지, 세계 속의 생명·건강 허브'를 비전으로 하고 있다.

부담 주체별로는 국비 1조 6954억 7600만원, 지방비 2873억 1700만원, 민자 7964억 6300만원

이며, 5대 분야 87개 단위사업으로 나눠 추진된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지역생활권 활성화'로 2조3910억 100만원(국비 1조 4845억 8400만원)이 투입된다.

여기에는 원주~강릉철도건설과 동흥천~양양고속도로를 비롯한 SOC 사업과 슬레이트지붕 철거, 농어촌상수도시설 확충 등이 포함된다. 이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에 2049억 6700만원이 배정.

지역특화산업 육성, 농촌체험관광과 크루즈 관광 활성화 등 24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교육여건 개선 및 창의적 인재양성(10개 사업·142억 700만원) △지역문화 육성·생태복원(9개 사업·947억 7000만원) 등이 추진된다.

김어진 beatle@kado.net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2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제5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제21대 도회장을 선출했다.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도회장 선출

<홍천 태성종합건설 대표>

정기총회... 유공자 표창도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도지사 표창

오인철(59)홍천 태성종합건설 대표가 제21대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으로 선출됐다.

△김영수 강원건설 대표 △김창원 남강건설 대표 △조형범 에스지건설 대표 △정의섭 여운 대표 △전제원 유원종합건설 대표

대한건설협회 도회는 25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21대 회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오인철 대표가 투표에 참가한 102명 가운데 51표를 얻어 당선 의예를 안았다. 오 대표 는 오는 6월 26일부터 3년간 건설협회 도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도교육감 표창

△김희대 금보종합건설 대표 △김정섭 신진종합건설 대표

홍천출신으로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을 수료했다. 도체육회 이사, 건설협회 홍천군협의회장 등을 지냈으며 도육상경기연맹 부회장, 강원경찰발전위원회 부위원장, 건설협회 도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주국도관리청장 표창

△송영찬 유진종합건설 대표 △김동진 조아건설 대표

◇건설협회장 감사패

△안현구 대원 대표 △조진목 진우종합건설 대표 △이우식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장

◇도회장 공로패 및 감사패

△박준용 석창종합건설 대표 △최종만 대주건설산업 대표 △박남용 두성건설 대표 △김석길 신도건설 대표 △신주원 신한건설 대표 △정대환 이레건설 대표 △박춘호 하림종합건설 대표 △정수진 도회 사무처 △최원식 강원도 동계올림픽본부 건설추진단장 △임재설 도 세정과장 △윤성보 도문화체육국 과장 △김연숙 회계과장 △정관란 지역도시와 △김영재 동계올림픽본부 시설1과 △이정민 원주국도관리청 건설지원과 △이창수 강원도달청 경영관리과 △김종인 도교육청 시설과 △김상기 춘천시 회계과

대한설비건설도회 오늘 원주서 정기총회



대한설비건설도회(회장 김철호·사진)는 26일 오전 11시 인터블고호텔 원주 장미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지난해 사업을 결산하고 통상회비 요율인하 결정 등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한다.

또 이날 설비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도 마련된다.

박현철

유공자 명단 kado.net

한편 이날 제57회 정기총회 기념행사에서는 김진태 국회의원, 민병희 도교육감, 김종석 강원도민일보사장, 정재용 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또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도내 건설업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감사패 전달식도 마련됐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공공공사 합리적 단가 정착 친목도모 위한 집행부 구성”

오인철 건설협회 도회장

25일 열린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제21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오인철(59) 흥천태성종합건설 대표는 오는 6월 26일부터 3년간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당선 소감을 들어봤다.

-소감은.

“회원들의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걱정보다는 희망과 열정을 앞세워 도내 건설업계 현안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협회의 혁신과 화합으로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건설업계가 공공수주 감소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책임감이 남다를텐데.

“공공수주가 대부분인 강원도는 2009년 2조6000억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 표준시장 단



가제의 실효성 확보 등 도회가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도 업계 선후배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일은.

“공공공사 설계용역 발주시 합리적단가의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전체 회원사의 친목도모에 중점을 두고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폭넓은 집행부를 구성하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회원들이 잘 돼야 우리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하겠다. 열정을 다해 회원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 2015.03.26(목) 건설경제 】